

건강 칼럼

염증성 장 질환이란?

염증성 장질환은 장관내 비정상적인 만성 염증이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아직까지 염증성 장질환의 명확한 발병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았다.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과 함께...

최근에는 서구화되어 가는 생활습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동양에서도...

그리고 주로 젊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한다.

▲ 췌장성 대장염

췌장성 대장염은 직장에서 대장의 근위부로 이어지는 대장 점막의 염증을 특징으로 하며...

크론병은 구강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장관 협착, 천공, 농양, 누공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

염증성 장질환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진단방법은 없다.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은 임상 증상, 내시경 및 조직병리 소견, 혈액 검사소견...

하지만 급성 감염성 장염, 장결핵, 또는 과민성 장증후군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대장내시경 검사이다.

대장내시경은 다른 장질환과의 감별, 병변 부위의 평가, 중증도 평가,

치료에 대한 반응 평가, 합병증 및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대장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그 외에도 혈액, 혈청 검사 및大便 검사, 그리고 복부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소장 조영술과 같은 영상의학검사, 캡슐 내시경이나...

하지만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을 만큼 감별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염증성 장 질환의 치료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없어지는 관계기와 악화되는 활동기가 반복되는 만성 질환이다.

따라서 질환의 완화보다는 증상의 조절과 합병증 예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치료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5-aminosalicylate 제제, 스테로이드 제제, azathioprine이나 6-mercaptopurine과 같은 면역억제제들이 있다.

그 외 정장제 제제나 일부 항생제가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최근에 개발돼 사용중인 생물학적 제제들이 관해 유도 및 관해 유지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물 치료는 일부의 환자에서 구역질, 속쓰림, 두통, 어지러움, 빈혈 및 피부반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드물게는 간염,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약물을 스스로 조절하지 말고 담당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췌장성 대장염은 출혈이 조절되지 않거나, 천공 또는 대장암이 발생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크론병에서는 장폐쇄, 복강내 농양, 장 천공, 출혈 및 협착, 그리고 대장암이나 대장암 전암성 병변이 확인된 경우 수술을 시행한다.

췌장성 대장염과는 달리 크론병은 수술 후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설

젊은이들의 탈전북 현상 여전하다

아직도 젊은이들의 탈전북 현상이 여전하다. 전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 지자체는 오늘의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 궁금하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에 할 말이 있다. 우리 지역은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불명예스런 성적표를 갖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어쩌면 일인지 갈수록 청년 고용의 열기를 움직임이 미미하다.

문재인 정부가 우선순위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는 이때,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그에 부응하여 방침을 세워야 한다.

창출과 고용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언론사가 카메라를 들이 댈 때만 협조하는 척 할 게 아니다.

청년 고용 열기가 식지 않도록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십수년간 전북 청년 실업의 현실은 전북도가 과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취업자들은 전북도가 때때마다 발표한 실업률의 수치를 공감하지 않고 있다. 대졸자 거의 태반이 백수인 게 팩트이기 때문이다.

세계잼버리대회로 새만금 성공신화를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극대화를 위한 특별 전담드림팀이 든다는 보도인데 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두고도 모든 것이 고무되어 있다.

전북도는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계기로 많은 성공신화를 써야 한다.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 대회를 열게 되므로 현장인 새만금의 성공신화를 우선적으로 써야 함은 물론이다.

대행사를 치르는데 불편하거나 초라하거나 쓸쓸해서는 안될 테니까 말이다. 이제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전북도는 더욱 진취적이 되어야겠다.

독자제언

117 신고로 학교폭력 이제 그만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 근절캠페인을 곳곳에서 시행하는 등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가야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등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영서는 2012년 2월부터 학교폭력

과 청소년선도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발대하고 전국에 배치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인 117학교폭력 ONE-STOP센터를 경찰·교육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 전국 동시 117학교폭력 전화연결 서비스를 개소하였다.

또한 전화연결이 부담스러운 피해자들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인 117챗(chat)을 도입하여 학생·학부모 등 누구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7센터 상담사와 24시간 채팅을 하면서 하면서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 등 증거자료 등을 전송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사례에 맞춘 학교전담경찰관 및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강령관 고창경형서 모양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고속도로 갓길에 안전지대라는 위험한 생각

푼디고운 꽃들의 향연으로 세상이 뒤 덮이는 봄이다. 봄나들이로 이동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갓길 차로로 주행하는 사례가 있다.

갓길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인식이 이처럼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에는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의 갓길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도 안전감각대를 차량 100m 후방에 세워야 하며,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세우고 삼광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해있을 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추돌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61조에 의해 안전삼각대 미설치 시에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봄나들이 등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운전자들은 자발적인 안전운전 의식으로 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백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과대순경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